

## 100년을 이어갈 청사진 공개

모두의 노력이 만든 30년, 여러분 덕분입니다



▶30주년 기념행사

부산지역 4년제 대학인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대학은 1992년 정원 400명으로 출발해 현재 누계 졸업생이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는 학생, 교수, 직원, 환경미화 이모넵까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일구어낸 덕분이다. 우리 대학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교 30주년 슬로건도 '덕분입니다'로 정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30주년 기념행사 주관을 앞두고 대학 주변과 캠퍼스 곳곳에는 '덕분입니다' 문구가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30주년 행사를 마련했다. (1~3일·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시어터), 대학 축제(2일·운동장),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SDGs센터 개소(5일·뉴밀레니엄관 2층), 단과대별 학술행사과 국제학술대회가 이어진다. 6일 오전 명예의 전당 제막식과 '미디어 아트 갤러리' 오픈에 이어 오후엔 개교 30주년 기념식(소향아트홀)을 겸한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특성화와 국제화로 이겨 나가려 한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는 '영화감독형 교수 시스템' 제도를 전격 도입이다. 영화감독이 시나리오·배우·촬영·조명 등 영화 제작 전반을 총괄하고 영화가 완성되면 해산하듯 전임교수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과목을 설계하고 필요한 교원과 현장 전문가를 섭외해서 한 학기 동안 팀 티칭하는 방식이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의 조직은 고정화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목민처럼 노마드적인 교육체계를 도입해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화감독형 교수 시스템'은 내년 3월 공과대학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한 뒤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영화감독형 교수 시스템'과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AAU(Asian Alliance University)를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에 온라인 대학인 AAU를 설립한 후 우리 학교의 온라인 교과목을 송출하고 학생은 거주지에서 2년간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한 후 3학년이 되면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하는 획기적인 교육방식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브리웨어(Anywhere)' 교육플랫폼을 조성해 '경험학습'과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 세계가 학습의 장이란 개념을 도입해 '겔스(GELS: Global Experiential Learning Sites)'를 1,000곳 이상 개발하고,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을 해외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이 스스로 '동물 멸종'을 주제로 수업을 설계해 공부한 뒤 한 달간 사하라 사막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학생 주도 맞춤형 국제



▶장재국 총장

화를 심화하면서, 도전 정신과 새로운 발상을 키울 기회를 마련했다. 장재국 총장은 개교 30주년 인터뷰에서 "혁신적인 대학을 통해 세상에 없는 대학 모델을 제시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국에 19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하나의 대학으로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타고난 고유의 재능을 개발해 주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잘하는 것을 찾아주기만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대에는 낙오자란 단어가 있을 수 없다.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달란트개발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며 학생·시민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으며, 학생들의 재능을 일깨우는 특별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 쇼미더동서 AI 성황리에 개최!

SW중심대학사업단의 성과발표회



▶제2회 2022 쇼미더동서 AI 개막식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최한 '제2회 2022 쇼미더동서 AI'가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UIT관 6층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쇼미더동서 AI는 우리 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AI-SW 교육 가치 확산, 산학공동 연구성과 등을 총망라하는 전시 및 체험의 장이 열렸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장재국 총장을 비롯한 우리 학교 관계자들과 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주제는 ▲AI-SW 교육 스페이스 ▲AI-SW 프로젝트 갤러리 ▲AI-SW 플레이 그라운드라는 3가지의 색선으로 구분되어 진행됐고, 첫날 행사에서는 그간 SW중심대학사업단의 우수성과발표가 있었다. 'AI-SW 교육 스페이스'는 SW중심학과, SW융합연구전공 및 대학-대학원 전시로 이뤄진다. 'AI-SW 프로젝트 갤러리'는 SW중심학과 클래스 프로젝트 및 AI+X연구소 학생 성과물 전시이며, 'AI-SW 플레이 그라운드'는 ▲들어보자! AI ▲느껴보자! AI ▲떨어보자! AI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추가된 외국어 SW융합연구 전공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XR콘텐츠 전공이 눈길을 끌었다. AI-SW융합과에서는 SW융합대학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해 다양한 융합연구전공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인공지능 연구 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돼 AI가상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메타 휴먼을 활용한 드라마제작 사업까지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 갤러리에서는 클래스 프로젝트 결과물인 <효율적인 독서를 위한 KoBART기반 수준별 문해력 향상 시스템>의 19집 및 AI+X연구소 성과를 9집, 메타버스 기반 가치확산의 다수의 성과물 등이 전시됐다. AI-SW 플레이 그라운드에서는 OSS 기반 AI-SW 전문가 3인의 특강을 진행했고, 내가 슈퍼히어로, 메타버스 FPS, VR 인터랙티브, 암호크랙/포렌식 경진대회도 치러졌다. 암호크랙/포렌식 경진대회의 경우 총 12팀이 참가했으며, 인공지능학과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 미래형 대학에서 꿈을 펼치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변동사항



▶DSU 심플

우리 대학은 이번 2023년 수시모집 홍보를 숫자로 보는 위풍당당 DSU를 강조한다. ▲4개의 캠퍼스(미국, 중국, 주례, 센텀) ▲수행한 국제사업 총합액 732억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우수학과 선정 개수 12개 ▲8년 연속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전국 4년제 대학 중 해외 취업 2위 ▲K-MOVE 5개 과정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16년간 총사업비 632억 ▲1년 동안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 1,000명 ▲해의학술교류 협정체결 국가 43개국 등 우리 대학의 규모와 성과를 수치로 설명한다.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합점원의 94.7%인 2,020명을 선발한다. 면접이 없거나 면접일이 겹치지 않으면 수험생 1명이 최대 6개 전형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감점 없이 문·이과교차지원이 허용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도 없다. 전과(학부 이동·전공 변경)도 제도별로

기준을 완화해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2·3학년은 물론 4학년에도 전과가 가능하다. 단 보건행정학과를 제외한 보건의로 계열(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은 특성상 전과가 불가능하다. 학과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 학과도 있다. 글로벌경영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는 경영학부, 기계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로 변경됐다. 전형 명칭 또한 변경됐다. 기존 일반계고교 전형이 폐지되고 교과성적 전형, 교수추천자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은 일반계고교 전형, 학생부면접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전형 명칭이 변경됐다. 일반계고교 전형이 폐지되면서 일반계고교 전형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528명 증가했다. 학생부교과교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반계고교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사회

구분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면접고사	실기고사
정원 내	일반계고교 전형	784	100(100)	-	-
	학생부면접 전형	421	70(62.5)	30(37.5)	-
	특성화고교 전형	150	100(100)	-	-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58	100(100)	-	-
	학생부종합	149	60(60) (교과, 비교과)	40(40)	-
정원 외	SW융합인재 전형	8	60(60) (교과, 비교과)	40(40)	-
	기타	100	40(44.4)	60(55.6)	-
	실기위주	350	20(9.1)	-	80(90.9)
	학생부교과	52	100(100)	-	-
실적 위주	농어촌출신자 전형	52	100(100)	-	-
	특성화동일계출신자 전형	31	100(100)	-	-
	고른기회 전형	32	100(100)	-	-
총합	성인학습자 전형	52	100(100)	-	-
총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90	면접 40(44.4), 서류(산업체 경력) 60(55.6)	-	-

▶일반계고교 전형 폐지 후 모집인원 및 성적반영비율

배려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전형의 경우 학생부 70%·면접 30%를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종합 전형, SW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60%·면접고사 40%(교과, 비교과)로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SW융합인재전형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입학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으로 지원하면 된다. 평생학습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40%·면접고사 60%를 반영한다. 실기 전형의 경우 학생부 20%·실기고사 80%로 반영한다. 성적 반영 방법 관련 변동사항으로 학생부 성적 반영이 변경됐다. 작년과 동일하게 필수 3과목, 자유 7과목 등 총 10과목이 반영할 수 있지만, 필수 3과목은 국어·영어·수학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 선택으로 반영으로 변경됐다. 성적산출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1교과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국어, 국어, 국어/국어, 수학, 수학/영어, 영어, 수학 등 가능하며, 특정 교과만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필수교과 3과목 외 전 과목에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반영할 수 있으며 총 10과목 국어라도 반영할 수 있다. 디자인 대학(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과 디지털콘텐츠 학부(게임학과·영상애니메이션학과·웹툰학과)의 실기 고사 중 기초디자인 중목이 기존 3절에서 4절로, 고사 시간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 2023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동서대학교와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9월 13일(화)부터 17일(토) 18시까지이다. 더 자세한 입학전형 일정은 동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

국내 관광선도 대학으로써 자리매김



▶TPO 회원 증서 전달

우리 대학이 부산시 북구에 있는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사무국에서 국제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TPO 회원 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TPO 가입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관광선도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며, 관광산업 회복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는 2002년에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시미터가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도시 간 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의 창설 목적은 21세기의 서막과 함께 아시아·태평양도시시미터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현상에 주목하고 도시가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중심점이라는 데 합의했다. 또한 도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도시가 가진 환경과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시민사회 상호 간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시미터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관광이

인적교류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창설했다. TPO는 도시정비와 관광 분야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TPO는 회원 도시 간 교류 지원, 관광지원 홍보,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 분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출범 당시 TPO는 13개국 25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2022년 현재에는 137개 도시회원과 56개 민간회원이 활동한다. 이번 가입 승인을 우리 대학은 부산시에 사무국을 둔 TPO의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 회원이 됐다. 주태연 기자 jootaeyeon@gmail.com

### 사령

- 부국장 - 김규리(광고홍보학과·2)
- 정기자 - 주태연(건축공학과·3)

# 또 한 번 해외에서 날개를 펼치다!

국제광고제 수상 소식



▶레드닷 어워드 수상자 사진

우리 대학 학생들이 올해 뉴욕페스티벌, 레드닷 어워드 등의 국제광고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먼저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제는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히며, 그중 가장 오래된 광고제다. 1957년 미국 The New York Festivals 국제광고협회(IAA)의 주최로 설립된 이 광고제는 65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권위 있는 대회다.

금상은 이훈, 정유성, 하은별, 강동호, 방송연 학생의 <Smelly Belt>라는 작품이, 은상과 동상은 안치현, 강동호, 박원배, 이지은, 최민성 학생의 <Goodnight Mommy>라는 작품이 동시에 수상했다. Smelly Belt는 뉴욕페스티벌 이전에도 클리오 광고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이는 노스페이스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조난 사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난 구조견을 보내지만 55%는 발견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종자를 위한 냄새 나는 벨트로, 버클 안에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물체가 담겨져 있다. 스텝크가 분비하는 티롤이라는 액체를 만들어 한 번 버클을 열면 한 달 동안 냄새가 지속되고, 1km 밖까지 냄새가 풍겨진다고 한다. 조난 시 구조견이 냄새를 맡고 조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은상과 동상을 동시에 수상한 Goodnight Mommy는 청각장애인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다. 청각장애인 부모들은 육아로 인해 심각한 수면 장애를 달고 산다. 이들은 자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불안해하며, 끈으로 자녀와 손목을 연결하고 밤새우기도 한다. 이는 수면 부족 등의 수면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일반 베개가 아닌 진동 전자 베개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지하고 잠든 부모에게 진동으로 신호를 보내 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부모는 자녀의 수면 중 이상 반응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스위스 몽트리외 골든 어워드 광고 DESIGN 분야, 싱가포르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수상했다. 특히 레드닷 어워드에서는 상위 1%만 수여하는 'Best of the Best'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55개국 약 6,000여 개의 출품작 중 상위 38개의 작품만 수상한 매우 뜻깊은 상이다. 22년 싱가포르 레드닷 어워드는 iF,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수상함으로써 최고의 디자이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광고제 트로피

스위스 몽트리외 골든 어워드의 전 세계 대학생 수상자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며 총 수상 작품은 24개인데, 이 중 두 작품이 우리 대학에서 나왔다. 1989년부터 시작한 몽트리외의 황금상은 광고뿐만 아니라 미디어, 디지털, 영화 및 이벤트 분야에서 도 뛰어난 작품을 기리는 최초의 국제 대회로 여겨져 왔다.

모든 수상자는 스위스 및 국제 랭킹 목록에 포함되며, 국제 보도 자료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홍보된다. Talent Award를 플랫폼으로 사용해 주요 국제 전문가에게 작업물을 전시하게 된다.

합계 스위스 몽트리외 골든 어워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는 광고 DIGITAL/SOCIAL 분야의 김대엽, 김유진, 박원배, 이연주, 강동호 학생의 <Netflix>가 있다. 영국의 학생들이 자막 읽기의 불편함으로 넷플릭스 비영리 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는 점, 콘돔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임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넷플릭스의 듀렉스의 협업을 제안했다. 먼저 제품 외부의 비영리 콘텐츠 스토리라인으로 흥미를 일으킨다. 콘돔 구매 시 박스 내부의 QR코드를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비영리 콘텐츠 추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성문화 조성에 도움을 준다.

Goodnight Mommy 수상자 중 박원배 학생(광고홍보학과 4학년)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좋은 작품이 되기까지 고생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청각장애인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팀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민성 학생(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은 "소프트웨어학과로 융합 수업에 참여하며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조언과 지원이 더해져 이번 레드닷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작은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지원했으며, 우리 대학 융합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이디어 융합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광고홍보학과와 무도산 교수, 소프트웨어학과와 문미경 교수와 팀을 이뤄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 수업에서 나온 결과물은 지난 7년 동안 레드닷 어워드에서 총 16개의 작품이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겼고, 싱가포르 레드닷 어워드는 첫 출품에 'Best of the Best'를 수상했다. 이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성과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웹툰학과의 손에서 태어난 '모리'

수영구 홍보 캐릭터 '모리' 개발



▶홍보 캐릭터 '모리'

우리 대학 웹툰학과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영구 홍보 캐릭터인 '모리'를 개발했다. 지난 2009년 상표권까지 출원했던 인지도 낮은 수영구 마스코트 '수어와 영이' 대신, 모리가 수영구를 대표하게 됐다. 올해 4월 수영구 직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과 5월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모리'로 탄생하게 됐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의 대표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인 '클래스 셀링'을 통해 개발된 모리는 광안리 해변의 모래와 수영구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형상화해 제작됐다. 부산광역시 캐릭터인 부기와는 별개로, 모리는 수영구만의 홍보 캐릭터다.

이 캐릭터는 광안리 밤바다를 수놓는 불꽃처럼 펼쳐져 나온 불씨들이 광안리 해변의 모래와 합쳐져 생명을 갖게 된 설정으로 탄생하게 됐다.

최유명은 '모두의 모리가 되자!'다. SNS에서 친구를 만들어 준다 떨기를 좋아한다는 설정이다. 모리의 MBTI는 ENFP로, 주변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매력형이다. MBTI를 정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이다.

수영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등 현재 운영 중인 공식 SNS 채널에 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돼 각종 구청 소식 전달은 물론,

주민과의 감성적 교류까지 가능한 소통 캐릭터로 성장시킬 계획이라 말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돼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바로 만날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춰 SNS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모리의 탄생이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모리를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주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대학 웹툰학과는 앞으로 홍보 웹툰, 이모티콘 등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지역 홍보와 더불어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힘을 계속하겠다.

이승희 웹툰학과 교수는 "수영구 홍보 캐릭터인 모리는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고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로, 지역 주민을 포함해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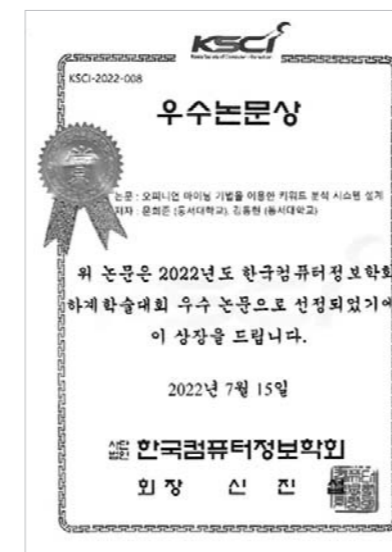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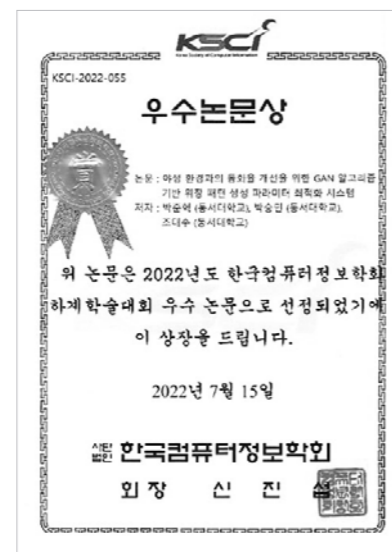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소프트웨어학과, 하계학술대회에서 4개 상 석권!

KSCI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수논문상 상장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에서 2022 KSCI(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4건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67편의 논문이 투고돼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건만 수상한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보이는 대담한 이력이다.

2022 KSCI 하계학술대회는 '메타버스 응용'이라는 주제로 아래 진행됐다.

5G 상용화 및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의 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추세의 확산으로 메타버스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응용 및 방송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산업을 이끌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습득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이원주 수석 부회장, 김수균 학술 부회장 등의 노력으로 인해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 좌장은 우리 대학 문재영 교수가 맡았다.

우수논문상 수상자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이은채, 문미경의 <Text-to-Image를 위한 아동 손그림 학습 모델 생성 연구>  
▲박준혁, 박승민, 조대수의 <아생 환경과 동화물 개선을 위한 GAN 알고리즘 기반 위장 패턴 생성 파라미터 최적화 시스템>  
▲문희준, 김동현의 <코피니언 마인팅 기법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 시스템 설계>  
▲최민성, 최봉준, 문미경의 <진로 변경 위한 영상 분석을 위한 객체 인식 방법>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응용 분야의 확대로 창작 산업에서의 역할도 커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 값을 입력하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기술이 있

지만, 아동이 직접 그린 손 그림을 생성하는 것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얘기한다. 아동 손 그림 데이터를 통해 Text-to-Image를 학습시켜 새로운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생성된 픽셀을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나의 아동 손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생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무늬를 연구했다. 기존 위장 무늬의 개선을 위한 GAN 알고리즘 기반 위장 패턴 생성 모델을 제안한다. 색 상단을 사용하면 기존 방식의 단순함을 보완해 GAN 알고리즘 활용 기술인 Deep Dream을 활용해 특정 종의 필드값을 조절하는 것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되는 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 색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이 있는 동물무늬와 섞어 자연과 아생 환경에서 더욱 동화율이 높아진 위장 패턴을 생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논문은 최근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키워드에 대한 여론 분석을 거

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힘들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성한 논문이다.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에 대해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감정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키워드 분석 시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문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담당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작성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고 영상의 위법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진로 변경 위한 분석에 필요한 차량과 실선 객체를 인식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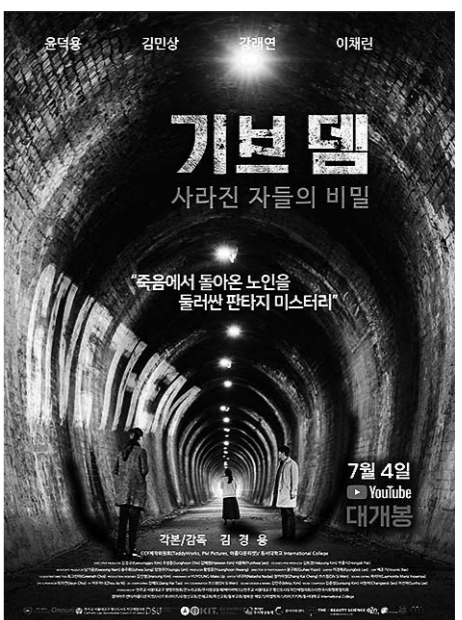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생명의 소중함을 영화에 담다

공동제작 영화 <기브템> 개봉



▶영화 포스터



▶사진 출처 - CBS 노컷뉴스

International College 공동제작 단타지 미스터리 단편영화 <기브템: 사라진 자들의 비밀>이 지난 7월 4일, 유튜브에서 정식 온라인 개봉했다.

42분 길이의 단편영화인 기브템은 죽었다가 1시간 만에 살아난 노인이 매일 급격히 젊어지면서 겪는 충격적인 판타지 미스터리 드라마 장르로, 노인이 날마다 젊어진다는 설정에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영화는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화가 많아지길 소망하며 모인 영화인들의 모임인 CCF(Christian Contemporary Film) 제작위원회의 첫 작품이다.

생명 경시, 폭력 등이 난무하는 요즘 문화콘텐츠들 사이에서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선한 뜻으로 공동 후원 및 제작된 특별한 조합의 단편영화로, 영화 제작비의 90% 이

상은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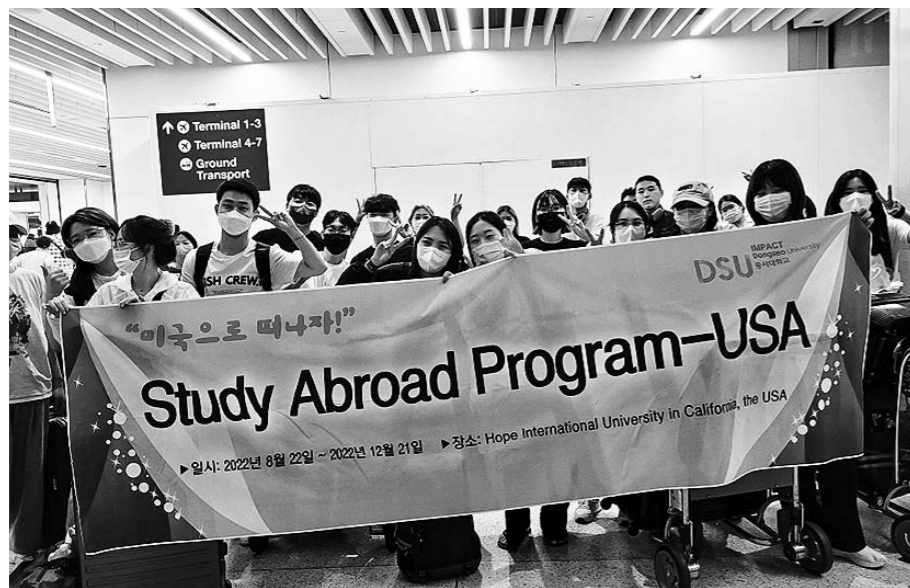
2021년 여름부터 총 7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강추위 속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본은 6월까지 후반 작업을 진행한 후 7월에 드디어 개봉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23일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VIP 시사회 및 제작보고회에서 2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호평을 남겼다. 해외 홍보를 위해 및 중국어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제작에 참여한 International College Film&VFX 전공 조성훈 책임교수는 "중국 중남재경경제대학교, 인도네시아 페트라그리스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 영화학과 학생들과 함께 시작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다들 최선을 다해 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동시에, 공동제작에 관심있고 모임을 가진 장제국 총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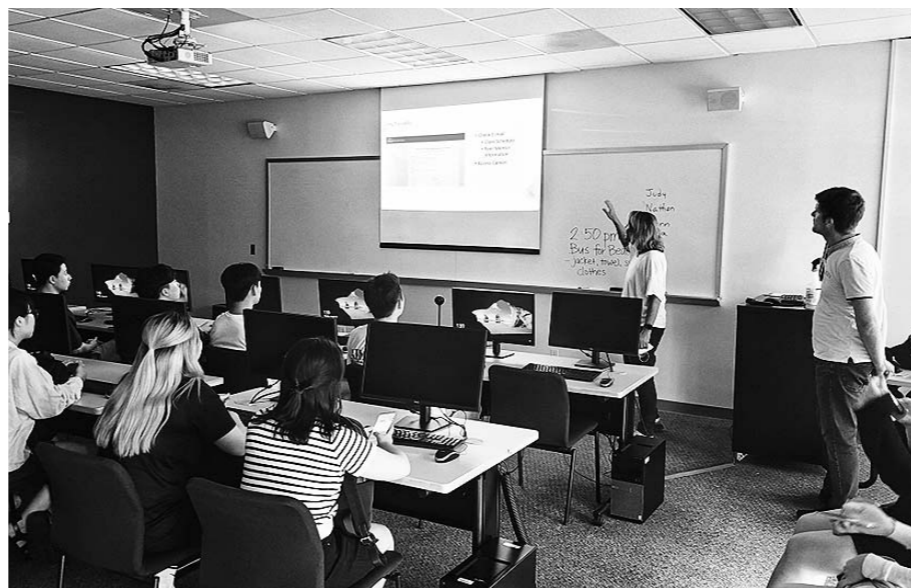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새로운 인재들이 미국으로 간다

## 2022학년도 미국 Study Abroad Program 출국



▶SAP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



▶수업 현장

미국 SAP(Study Abroad Program)에 참여하는 학생 30명이 지난달 8월 22일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에서 무사히 도착했다. SAP는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학점 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호프국제대학교와 중국의 중남재경정보대학, 일본의 일본경제대학 후쿠오카캠퍼스에 소재한 본교 해외캠퍼스에 학생들이 파견돼 공부하고 있다.

유학이나 해외연수의 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소재한 해외 캠퍼스 및 자매대학에서 외국어는 물론 현지 문화 체험과 전공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 SAP에 참가한 30명의 학생은 2022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19일까지 본교 자매대학인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현지 교수들로부터 영어를 교육받고 문화 체험 및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약 16주간의 기간 동안 현지에서의 수학을 통해 학생들은 2학기 최대 16학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본교 영어학과 전공선택 학점 또는 타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2022-2학기 미국 SAP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디자인대학 ▲미디어콘텐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International Studies 학과 소속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국제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SAP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자매대학인 미국 호프국제대학 내에 미주캠퍼스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학생이 미국문화를 체험하며 영어 공부와 학업에 매진하고 즐거운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항공료, 미국 현지 교육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학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장제국 총장은 "세계적으로 COVID-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SAP는 모집부터 경쟁률이 상향했다. 우리 학생들이 SAP를 통해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닌, 현지 우수 기업 및 전문 기술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국제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SAP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SAP에 다녀온 학생들은 학교와 국내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 예로, 지난 미국 SAP에 참가한 국제물류학전공 박근우 학생의 체험 스토리에 의하면 미국 SAP는 '더 넓은 세상이 선물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밝혔다.

그의 체험 스토리에서는 미국 SAP를 통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감탄과 함께 국제화 시대의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다음은 그의 체험 스토리다. '한국에서 영어는 필수였지만 저는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습다. 미국 SAP의 시작은 그래서 순탄치 않았습다.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후보 5위로 한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얼마 뒤 추가 합격의 소식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다. 실패를 한 번 경험한 저에선 SAP가 더욱 값졌습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걸고 금방 친해졌습다. 지칠 거름도 없이 미국에 왔다는 기쁨의 에너지로 현지 교수님의 눈여겨 보는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다. 우릴 통해 국제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SAP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알고 답답한 속도의 말하기지만 그들은 이해하고 배려해주었습니다.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9개월의 기간 두 학기 동안 미국 선거기간에 자원봉사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영어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학 동안 미 서부·동부·멕시코·캐나다를 경험했습니다. 서부에서 본 자연의 위대함은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대자연이 주는 감동을 흠뻑 느꼈습니다. 동부를 여행할 때는 전공 공부를 하며 봤던 건물들, 그리고 어려서 꿈꿔왔던 바닷가만 했던 곳에 서 있으며 뛰는 가슴을 느낄 수 있었습다. 동부 여행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한 계기가 됐습다. SAP를 통해 제 삶은 변했고 저의 갈 길을 찾았습다. 열정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열정이 있었기에 일궈냈습다.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을 선물해준 동서대학교에 감사하고 꼭 성공해서 모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미국 SAP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무사히 유학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제가 되도록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 학과장 인터뷰 - 광고홍보학과 학과장 류도상 교수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한다



류도상 교수

나누면 광고 기획과 광고 제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획 쪽은 마케팅과 기획 홍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제작 쪽은 크리에이티브 발상, 광고디자인, 카피라이트, 영상 제작과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Q.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클리오 어워드를 비롯해 매년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결국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연구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먼저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라고 늘 말합니다.

또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 공모전에 출품하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돈이 안 들지만, 실제 뛰어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영상 제작과 디자인 작업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공모전 출품비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나아가 광고홍보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첫째 공부도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중고등학교와 달리 본인이 취할 수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다양하더라도 광고대행사, 광고 프로덕션, 기업 홍보실,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에서 시각디자인과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제일기획 본사 서울 사무실과 LA 지사 제일기획에서 20년 넘게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 후 동서대에 와서 현재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제작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광고홍보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광고홍보학과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 기획부터 크리에이티브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돼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Q. 현재 학교의 현황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한가요?

A. 요즘 저출산으로 입학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광고홍보학과는 아직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 역시 한국 대학의 광고홍보학과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교만 원한다면 거의 모든 학생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다양하더라도 광고대행사, 광고 프로덕션, 기업 홍보실,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Q.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다양한 교과목이 있습니다. 크게

도엽 수습기자

# 산학협력과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 XR콘텐츠 분야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



▶XR콘텐츠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 기념 사진



▶출범식 현장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이 XR콘텐츠 ICC 중심 가상융합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시작했다.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분야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LINC 3.0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2017년부터 시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산학연 협력체제,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단은 디지털융합·영상·콘텐츠, 디자인, IT융합, 글로벌비즈니스, 바이오헬스를 중점분야로 국내 최고의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 중이다.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이 지난 10일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의 XR콘텐츠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을 센텀호텔에서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사업단 관계자 및 ICC 센터장 ▲LINC 3.0 사업 기

회사 대표 및 임직원 ▲지역기관 ▲협회 ▲연구소 등, 신산업창출을 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의 기업협업센터는 ▲XR(eXtended Reality)콘텐츠 ▲CV(Creative Visualization)디자인 ▲DX(Digital Transformation)부러리즘 3개로 구성돼 있다. 기업지원실을 중심으로 '4Co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산학연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4Co(Connection, Collaboration, Competitiveness, Co-prosperity) 기업지원'이란, 산학연 간의 쌍방향 지원 생태계 확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별 최적의 프로그램 매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XR콘텐츠 ICC'는 XR콘텐츠에 특화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이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감 콘텐츠 신산업 분야 관련 산학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센텀호텔에서 진행된 XR콘텐츠 ICC의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에서는 11개 기업 및 기관을 포함해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등 35명의 인원이 참석해 ▲신산업창출협의체 구성 ▲기업 소개 및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추진전략 ▲글로벌기업 양성전략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XR콘텐츠 ICC 신산업창출협의체는 참여기업 확대 및 메타기술 기반 산학연협력,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들은 신산업창출협의체를 통해 공동 관심분야 의제 발굴, 공유협업 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INC 3.0 사업단을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공동사업 도모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고도화 모델 창출 ▲관련 산업 및 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지식·기술 공유를 통한 인프라 확장 및 추가 확보 ▲ICC와 연계한 쌍방향 산학협력 활성화 및 참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대학, 지자체

및 기관과 실질적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신산업 창출 공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조수연 XR콘텐츠 ICC 센터장은 "가상융합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목표로 XR콘텐츠 ICC의 신산업창출협의체와 함께 지역, 산업계, 학교, 연구소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대학의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기업협업센터(ICC)를 신산업창출협의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과 제 기획 및 발굴, 피칭 데이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수요 창출 및 산업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분야는 우리 대학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덴마크에서 해외 대학원의 꿈을 키우다

## 해외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의 발견



▶해외교육프로그램 기념 사진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단장 문미경)은 2022년도 덴마크에 위치한 덴마크 올보그대학교와 남덴마크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3명의 학생들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8일간의 교육을 무사히 이수했다.

본 해외교육프로그램은 덴마크 올보그대학(AAU: Aalborg University)의 'ROBOTICS AND AUTOMATION' 그룹과 남덴마크대학(SDU: Southern Denmark University)의 'Robotics'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교육프로그램은 ▲로봇 연구환경 견학 및 연구체험 ▲AISW 기반 로봇 기초 및 활용 수업 ▲덴마크 문화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은 "이 교육을 통해 평소 관심이 없던 해외의 대학원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뜻깊은 소감을 남겼다.

올해 초부터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 최봉준 교수는 우리 대학의 학부생 6명과 더불어, AAU의 Chen 교수, 그리고 SDU의 Jinha Park 연구원과 함께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간 산출물로, 본 해외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에 최봉준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좋은 연구환경을 체험할

로써 견문을 넓힐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동서대학교 AAU, SDU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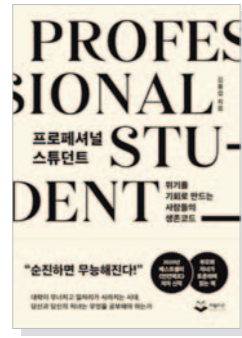
또한, 교육을 진행했던 AAU Chen 교수는 "동서대학교 최봉준 교수와 학생들이 AAU Smart Production Lab 방문했다. 우리는 다양한 로봇 분야 기술과 관련한 잠재적 협력에 대해 흥미로운 논의를 가졌다. 다음 있을 미팅이 기대된다"라고 개인 SNS에 소감을 남겼으며, SDU의 Jinha Park 연구원은 "SDU Robotics는 덴마크에서 로봇 기술을 선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동서대 학생들에게 소개해줄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본인 전공이 로봇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미팅을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협력에 소망했다.

한편, 우리 대학과 더불어 덴마크 남덴마크대학, 올보그대학 연계 학부생 해외교육프로그램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2023년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책 속의 풍경 -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 진정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 책 제목 :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 책 저자 : 김용섭  
 • 출판사 : 퍼블리온

수험생활을 겪고 있을 당시인 작년에 나에게 다가온 책이다. 수험생활 속에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독서였다. '과연 공부가 나에게 어디까지 도움이 될 것인가?', '끝은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되는 삶에 지친 일상생활 속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 하는 책을 찾은 것이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저자인 김용섭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김용섭 작가님은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GS, CJ, SK, 한화,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수행했으며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연재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트렌드 관련 고정 코너를 맡아 방송했으며, 대한민국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고 있고, 다수 기업들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부는 사전적 의미로 학문이나 기술

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공부는 대학을 가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인 학생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살아가며 평생 공부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다. 개인의 인생에서 교육과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이고, 부와 명예도 결국 이것들과 연결된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직업과 교육이다. 직업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교육과 직업을 둘러싼 화두를 해석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자 목적이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원래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던 말이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다. 다소 경멸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조금은 안타깝게 바라보며 쓰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말의 의미도 바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명문대의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더 이상 대학에만 머물며 사회생활과 성인의 삶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치열한 강자의 모습이 됐다.

한국인은 평생 공부를 달고 살았다. 어릴 땐 학교 성적부터 대학 입시까지 계속 공부의 연속이었고, 크면 취업하고 위한 공부, 자격증을 위한 공부, 그리고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등 해야 할 공

부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각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얻을 결과나 목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하면 될 율하는지, 어떤 공부에 집중할지도 좀 더 명확해진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선택해야 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시대에는 교육은 더 이상 노동자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미래의 교육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인 판단력, 창의력을 키우고, 인성과 품성, 인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일 수 밖에 없다.

먼저 우리는 포용하는 리더가 되게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지금의 직장인들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자신을 지키는 공부해야 한다. 내가 잘 돼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세 번째 목표는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이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네 번째 목표는 시점 스킬이 아닌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려면, 당신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김신회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옥사오

## 57억 6천 577만 2천 844원



• 영화 제목 : 옥사오  
 • 영화 감독 : 박규태

여러분은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이야기는 보초를 서던 박천우 병장(고경표 분)이 낱아온 로또를 주우며 시작된다. 주운 로또가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던 박천우 병장은 보초를 서던 중 실수로 로또를 놓쳐버린다.

바람에 날려 북으로 넘어가게 된 로또를 주운 리용호 하사(이이경 분)는 처음엔 낱한의 종이 조각리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낱한을 조사하는 방청진 하진사(김민희 분)가 종이 조각리의 정체에 대해 알려준다.

결국 리용호 하사도 로또의 진가를 알게 되고 로또를 돈으로 바꾸는 상상을 하며 행복해하기 시작한다. 결국 38선에서 박천우 병장과 리용호 하사가 협상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한다.

각 병사의 선입점마저 로또의 존재를 알게 되고, 38선에서의 거리가 힘들어지고 공동급수구역에서 거리가 시작된다. 서로를 못 믿는 남과 북의 병사들은

각각의 병사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박천우 병장은 북으로, 리용호 하사는 남으로 교환 군인 생활을 하게 되며 진짜 전쟁 같은 하루와 약간의 로맨스가 시작된다.

박규태 감독은 이 영화를 <공동경비구역 JSA>의 코미디 버전이라 소개했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을 패러디한 공동급수구역(JSA)부터 많은 웃음 포인트들이 즐비하다. 또한 리연희(박세완 분)군인의 액션이 고무막 같은 상황을 중간중간 시원하게 터뜨려준다.

나의 2022년 첫 코미디 영화로 기대를 많이 하고 보러 간 영화였다. 초반에는 개연성이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중간중간 깔린 복선이 반전을 더 빛나게 하는 영화였다. 그리고 정말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볼 때보다 극장에서 다 같이 보는 게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다.

영화를 보다 문득 '북한에서 정말 로또를 옥사오라고 부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보자. 북한에서 로또를 뭐라고 부를까? 바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복권'이었다.

영화에서는 로또를 '납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의 착취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에서도 1951년부터 만들어진 로또가 있었다는 점에 놀랐다. 그리고 북한 로또가 시작된 이유가 전쟁을 위한 자부금 모금을 위한 '조국보위복권'이었다는 점에도 가슴이 아왔다.

처음엔 북한과 남한과 관련된 영화라고 해서 뻔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자잘하게 특이한 설정과 전개들이 섞인 웃음 포인트들로 지루하지 않은 2시간을 보내고 왔다. 사실 초반 부분의 협상 장면이나 중간중간 몇몇 장면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웃음 포인트들이 많아 용서되는 영화였다. 교환된 병사들이 남과 북에 적응을 못해 발각될까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발각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너무나 좋은 결과로 상사들의 감동을 사버린 박천우 병사와 리용호 하사, 계속되는 협상 속 코믹한 장면들, 북한 말 연습을 하는 박천우 병사와 그 모습을 보며 긴장하는 이병, 리용호 하사의 줄임말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뜻풀이와 군화 닦는 장면까지 모든 장면에서 코믹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긴장감을 놓을 수 없도록 계속되는 발각 위협 등 영화의 끝까지 긴장감과 코믹함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액션 장면이 교차하여 팝콘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중간에 남부 병사가 같이 노는 장면에서는 서로의 법과 생각 말투 모든 게 달라도 우리의 뿌리인 해학과 가무를 좋아하는 것은 같다는 모습도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개인적인 결말의 묘지는 요령은 없다는 것 같다. 사실 로또를 잡은 것은 무척 행운이지만 그 이후로는 마음고생, 몸 고생 등 끊임없는 고생과 생명의 위협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북한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여름 밤의 꿈 같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사실 초반 부분의 협상 장면이나 중간중간 몇몇 장면들이 잘 이해되지

곧 다가오는 추석이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웃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한다.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두 다 같이 영화를 따라 웃다 보면 어느새 영화 속 말투가 배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최지혜 수습기자

#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할까?

## 배우 박정민의 에피소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박정민 스틸컷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할까?', '배우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수많은 꿈 중 배우를 꿈꾸는 이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메소드 연기, 자신이 맡은 배역에 푹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많은 배우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 생활방식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며, 감정 또한 그 캐릭터처럼 느끼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허구의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인물이 되려는 노력.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방해는 사절일 것 같은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들은 예민할까? 예민해서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과 함께 성공한 배우 중 한 명인 배우 박정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배우는 극도로 예민해야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배우들이 어떤 인물의 감정을 정확하게 조각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이성적인 작업에 근접해있다. 대다수 사람은 배우가 그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여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기관 실은 상대 배

우는 물론 스태프들과의 정확한 약속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이기에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어느 배우는 '연기를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내가 있다. 하나는 그 인물과 동화돼있는 나,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나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에너지를 폭발하는 연기는 그 표현방식이 오히려 단순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연적이거나 여자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소한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의 연기는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하면서 또한 그 인물이나 상황 속으로 배우가 완전히 접어들어가야 가능한 작업이다.

배우에 대한 편견을 꼭 하나만 말해야 한다면, 대다수가 '배우는 극도로 예민한 존재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사실 감정을 잘게 조각해 표현하는 직업인만큼 당연히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다. 이들의 노동이야말로 감정 노동이니까. 그렇다면 예민한 배우가 연기도 잘할까?

물론, 일부만 보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 예민함이 극에 달해있는 것이 배우의 미덕은 아니다. 감정적 예민함을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사용하는 배우가 오히려 배

우로서 가장 중요한 미덕을 갖춘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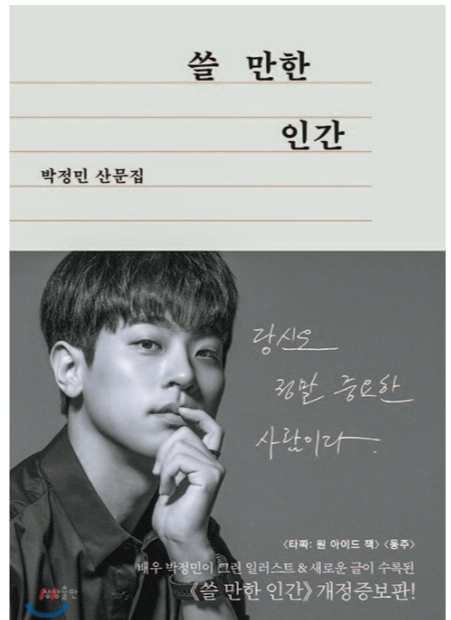
# 배우 박정민, 절고 유망하며 조금은 불안한 청춘의 기록

<술 만한 인간>이라는 책이 있다. 글쓴이는 박정민이다. 대한민국 박정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된 배우 박정민이 저자다.

이 책은 그가 아직 충분히 유명하지가 전인 2016년에 나왔다. 에세이를 읽는 게 사람을 읽는 것이라면, <술 만한 인간>은 읽는 건 아직 충분히 유명하지 않은 박정민을 만나는 몇 안 되는 방법이다. 더욱 정확히는 그가 아직 20대이던 2013년부터 <동주> <연산> <사바하> 등 유명한 작품에 출연이 주연으로 출연한 2019년 30대 중반의 그를 저근히 만날 수 있다.

책에 실린 첫 글은 2013년 6월에 쓰인 것이다. 스타일잡 박정민은 첫 장편영화 <파수꾼>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한 신인 배우다. 2005년부터 극단 생활을 하며 연기를 익혔는데, 사람들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글을 통해 만나는 20대 박정민은 가볍고 감정적 예민함이 극에 달해있는 것이 배우의 미덕은 아니다. 감정적 예민함을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사용하는 배우가 오히려 배



▶<술 만한 인간> 표지

학한 재능 있는 청년이며, 꿈을 찾아 가까이 극단으로, 예술학교로 몸을 던지는 고집 있는 젊음이기도 하다. 20대 중반에 잡지사 'top class'에 정기 연재 자리를 얻었고, 잡지의 관심을 끌만큼 사이월드와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그의 현재를 알고서 그의 과거와 만나는 건 색다른 일이다. 글 속 박정민에게 오늘 거둔 그의 성공을 설명한대도, 혹은 오늘의 박정민에게 글 속 박정민을 소개한대도 서로가 완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다.

<술 만한 인간>은 박정민의 성장기이며, 충분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것이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가치라 할 것이다.

배우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 '성공'을 꿈꾼다. 남의 성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의 끝은 성공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노력을 멈추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달리다 보면 끝은 보일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 배우와 연기 유쾌하며 무뎠던 청년인 것처럼 보인다. 일본과 유럽, 남미 등지를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자이며, 썩 공부를 잘해 고려대학교에 입학

noeyusoho@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 소프라노 정혜리 독창회

• 기간 : 2022. 09. 13.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문화윤곽  
 • 입장료 : 전석 2만 원



####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 기간 : 2022. 09. 14.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5만 원/S석 3만 원/A석 2만 원



####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 기간 : 2022. 09. 15. (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1만 원



#### 창작음악 페스티벌

• 기간 : 2022. 09. 16. (금)~2022. 09. 17.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향신록  
 • 입장료 : 주최측 문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콘체르토 페스티벌

• 기간 : 2022. 09. 18. (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입장료 : 주최측 문의



#### 전통음악의 밤

• 기간 : 2022. 09. 20.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1층) 1만 원/S석(2층) 5천 원



#### 심포니야채

• 기간 : 2022. 09. 22. (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1만 원

# 지구 시계는 위험을 가리킨다

## 지구 환경 문제와 위기



▶지구 온난화 사진



▶해양오염 사진



▶제 3회 푸른 하늘의 날

▶사진출처 -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

각국 정상들이 모인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연설한 어린 소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하여금 많은 울림을 줬다. 이날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는 약 4분의 연설 동안 그녀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와 위험에 대해 말한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직면해 있어 그녀의 연설이 세계의 화제가 됐을까?

또한 유엔에서는 지속 발전 가능성을 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우리의 인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지구가 더 이상 특별한 노력 없이 지속할 수 없음을 내포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저 생물 몇 종이 멸종하고 집 앞 하천이 오염되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매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소리는 자주 듣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각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 # 지구온난화

가장 크고 잘 알려진 문제는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는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 마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를 이루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기체의 증가가 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인 IPCC에 따르면,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근 배출된 온실가스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온실가스 배출이 심화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지구 환경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가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 환경 위기

지구 환경 위기는 환경오염을 넘어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문제시되는 위기 상황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온난화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 현상은 섬과 같은 바다와 밀접한 해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륙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땅을 바다에 잠기게 만들어 토지를 손실시킨다.

동식물 멸종 역시 심각하다. 인간이 사용하고 개발한 토지를 때문에 동식물이 살아갈 자리를 빼앗기고 또한 인간이 배출하는 많은 양의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이야기한 해수면 상승 역시 멸종의 한 가지 원인이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생물이 살아갈 거주지를 빼앗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이 물로써 토지 손실을 일으켰다면, 토지 사막화 현상은 가뭄과 같은 이유로 토지가 사막화 돼 우리가 거주할

토지를 잃어버리게 한다. 사막화 현상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능을 하는 숲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뭄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봄, 가을이 점점 줄어들며 계절의 변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 # 탄소 중립

국제사회는 환경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말한다. 탄소 중립이란 이전에서 설명한 지구 온난화의 유력한 원인이며 증가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일부 존재하는 온실가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중 일부는 지구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기도 하며 인간의 기술을 통해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

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지구와 인간이 소화 가능한 양의 온실가스를 처리함으로써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드는, 즉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은 탄소 중립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푸른 하늘의 날과 우리들의 노력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맑고 푸른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로 유엔 기념 지정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제안하여 지정된 첫 유엔 기념 지정일이라는 특징이 있다. 환경 문제는 국제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 쓰레기 최소화를 뜻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있다. 배달 음식과 포장 용기를 자주 사용하는 일회 용기를 줄이고 재활용되어 만들어진 물품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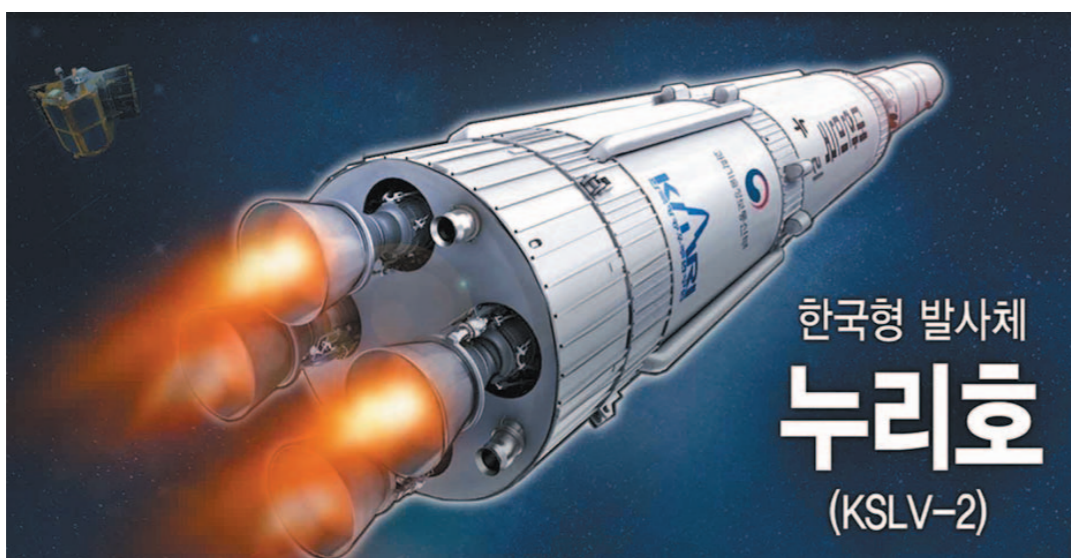
최근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는 추세다. 또한 다시 사용가능한 텀블러를 지참하여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많은 혜택 역시 제공한다. 우리들이 텀블러와 같이 사소한 것에서 작은 실천을 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기업체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하며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플라스틱 용기 대신 개인 텀블러를 한 번 이용해 환경 운동에 동참 해보는 건 어떨까?

도 업 수습기자

# 누리호의 성공과 다누리호의 도전

## 한국 우주탐사의 역사를 쓰다



▶누리호



▶다누리 탑재체



▶누리호와 향후 우주 계획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2년 6월 21일 16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KSLV(한국형 발사체) 계획에 따라 개발 완료된 누리호(KSLV-II)가 발사되고 이륙 15분 45초 후 위성 모형을 고도 700km 궤도에 초속 7.5km로 안착시키며 임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온 국민을 기쁘게 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우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자국의 기술을 가지고 우주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다.

1957년 인류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이후 65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결과다. 그동안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던 우주기술을 26년간의 노력 끝에 보유하게 됐으니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누리호의 성공 과정과 향후 다누리호의 도전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 한국형 발사체

대한민국이 우주발사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1996년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장기적인 목표만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2000년에 발표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에서였다. 수정안에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했는데 2005년까지 100kg급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 1톤급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며 2015년까지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너무나도 극명했다. 특히 기존 독자 기술을 가진 외국과 협력하고 싶어도 해당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NPT)의 규제로 인해 협력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도 NPT에 가입하게 되면서 가입국 간에 기술이전이 가능해졌고 2004년 러시아와 우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술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진행되나 했지만, 양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술이전의 어려움을 겪으며 계획을 수정하는 등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아는 나로호가 만들어졌고 2013년 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큰 도움이 됐고 특히 누리호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 자체 개발한 최초의 로켓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해 만들어진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이전 나로호(KSLV-I)와의 가장 큰 차이 또한 '자체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 핵심 엔진 기술에 의존해서 개발한 나로호와는 달리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등 민간 기업 30개가 참여했으며 설계, 제작, 시험, 인증, 발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

으로 해냈다. # K-우주산업 열풍을 일으키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4번 더 발사해 위성을 10개 이상 투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형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KSLV-III)를 준비하며 2031년까지 자체 개발 로켓을 이용해 무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K-우주산업의 시작을 공표했다.

지구에 자원이 한정된 만큼 우주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향후 우주개발이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우주의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우주 개발산업은 차세대 국가의 미래산업인 셈이다. 필자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지

속해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개발과 연구를 진행해 앞으로 해외여행 대신에 달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다누리호의 도전

다누리호는 2022년 8월 5일에 발사된 첫 번째 한국형 달 궤도선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해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 기지에서 발사돼 현재 달을 탐사 중이다. 발사 이후부터 약 4개월 반 정도 달 궤도에 진입해 안착할 예정이고 1년 동안 달 상공 100km 궤도를 돌면서 달 탐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시험하게 돼 BTS의 '다이내믹 듀오'를 스트리밍할 예정이라고 하니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향후 우주탐사 궤도선 또는 착륙선 간의 통신에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달 착륙지 선정에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 촬영, 달의 지질과 자원 탐

사, 달 표면과 근저 영역의 우주 환경 연구로 달 자기장 지도 획득, 발사는 세기 연구 및 고에너지 입자 밀도 연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근황을 물어보면 8월 26일에 지구로부터 124만 km 거리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구와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순조롭게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관측 정보 등을 토대로 2031년 달 착륙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켓에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위성들을 보낼 수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자료출처 : BBC News 코리아-누리호 기획 한겨레-다누리호의 첫 사진... '지구와 달'을 한눈에 담았다 중앙일보-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 인터뷰 네이버 블로그-다누리의 역할과 임무 총정리 박상욱 수습기자



임광산 맑은 소리

올해 3학년이 된 나는 2학기를 앞둔 지금 지나온 학교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첫 대학생활의 시작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었다. MT나 학과 모임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학과 동기 또한 1학년 2학기는 돼서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때 친해진 동기들은 편입으로 인해 타 학교에 진학해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지만 종종 생각나곤 한다. 특별히 인상 깊은 학과 활동은 없었기에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물론 1학년 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지만 현재의 나로서 코로나 이전으로 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나는 지금껏 학교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히 하였던 터라 높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인 과제,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한 번 시작하는 일은 100%에 가깝게 마무리하려는 성격이 한몫했던 것 같다.

물론 이런 성격이 독이 돼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적도 꽤 많았다.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조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였다.

팀원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니 마음은 편하면서도 완성된 보고서를 보며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달래며 그 자체였다.

## 4년의 일기

박수빈(국제통상학과·3)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이 말을 100번을 들어도 공감할 수 없었다.

내가 했던 활동들과 노력들은 애초부터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습관이자 일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나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했기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특히 연령별로, 작게는 학기별로 목표를 정해두고 미래에 해보고 싶은 일들은 모두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목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주기에 현재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다만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자유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은 좋지만 장래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매일 집 앞에 잠깐 산책을 나왔을 때처럼 거리를 서성이다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학교뿐 아니라 이번 하계방학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다만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자유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한 학교 시험과 자격증 공부, 자기소개서, NCS 등이 많이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느꼈는지 증명해하지 않는다. 실력 그 과정을 들는다고 해도 마음속 깊게 남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상대에게 나는 이런 결과만 기억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커리어를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나는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성적 유지를 잘 해서인지 교수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을 내미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짐을 느꼈다.

나 또한 학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많았던 터라 감사한 마음으로 들게 되는 한 해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학기도 열심히 과제하고 신나게 놀다 보면 방학이고 그다음은 졸업이겠지. 내가 곧 있으면 4학년이리니 믿기지 않는다. 이제 수업이나 과제 따라가느라 지칠 일은 없겠지만 이것 또한 그리울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결국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겠는가. 본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 죽비소리

## 용기 내서 도전할 것

김나현(광고홍보학과·1)

나는 올해 광고홍보학과 2학번으로 입학했다. 내가 오고 싶었던 학교였기에 대학교 생활이 기대했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1학년을 후회 없이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OT며 MT며 나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면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아쉽긴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도 내년 졸업 많은 대면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의 학교생활을 떠올리면 한 학기 동안 나 나름대로 재밌게 보냈다고 생각한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적응하려니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온통 낯선 것들이 두렵기도 했다.

학기 초에는 흔히들 말하는 '갓생'을 살고 싶어 대외활동도 시작하고 과 연구회에도 가입했다. 살면서 대외활동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민폐만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외활동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민폐만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외활동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민폐만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외활동은 처음 해보는 거라 민폐만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페인'이라는 과 연구회에도 가입했다. 연구회에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던 시간이었다. 광고홍보학과 특성상 PPT를 쓸 일이 많고 팀에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데 기초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연구회 초반에는 선배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거듭 수정하기도 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피드백들이 쌓이고 쌓여 실력이 되었는지 종강이 다 와갈 때쯤엔 피드백의 양도 확실히 줄었다. 그렇게 종강 파티 겸 과 연구회들이 모여 회식도 하고 즐겁게 마무리를 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많이 부족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나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고맙다.

학기 중반에는 내가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 일이 있었다. 스냅 촬영이 정확히 뭘인지 몰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신청하였고 사진작가님과 연락이 닿아 빠르게 미팅 날짜까지 잡았다. 미팅 날이 다가왔고 전체적인 사진 콘셉트를 정했다. 며칠이 지나 스냅 촬영 당일엔 다가왔고 싱그러운 여름을 콘셉트로 식물 카페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처음 해보는 촬영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 재밌었다. 사실 촬영에 흥미를 느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의외의 줄거리를 접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사진작가님과 사진을 고른 후 스냅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평소 같은 도전해 보지도 않았을 일을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임해 보니까 오히려 좋았다. 뭔가 나도 모르 나를 발견하는 기분이었다고 이런 도전 이라든 계속해서 용기 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대학 친구는 걸친구다' 혹은 '대학에서 사친 친구들은 진짜 친구다'라는 말

을 들어본 적이 있다. 대학에 오기 전엔 이런 말들을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싶다. 한 학기 동안 난 나와 잘 통하는 같은 과 친구들을 만났고 여름방학이 되어서도 꾸준히 연락을 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을 금방 만난 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양보다는 질이 높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나인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애쓰고 싶진 않다.

그런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말이 있다. 바로 2021 법칙이다. "2:6:2 법칙이라는 게 있다. 열 사람이 모이면 그중에 둘은 내 좋아하고, 셋은 내게 관심이 없고, 나머지 둘은 내 싫어하기 마련이라는 자연의 법칙" 드라마 <블랙독>에서 배우 서현진 님의 명대사로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인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나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 매우 서현진 님의 명대사로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인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나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 매우 서현진 님의 명대사로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인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나 나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 매우 서현진 님의 명대사로 알게 되었다.

## 이달의 명언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큼 복확실할 수 있다  
-브렛 버틀러

인간은 살아있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역량을 간직해야 한다  
-머가렛 대처

관찰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루이 파스퇴르

## 네컷만화

### 노력의 결실



이게 맞아?

그러나..

과목	성적
1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때론 힘들고 찾아오는 번뇌조차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물이 아닌 미소 가득한 한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사설

###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총 312만 8,962가구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축종별 유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개, 고양이의 유기 건수는 총 563,772건이 발생했다. 그중 26.9%가 자연사하고 22.4%가 안락사됐다. 정부에서 입양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양 비율은 늘지 않아서 2016년 32.9%였는데 2020년은 오히려 줄어든 30.7%였다.

사람들은 왜 동물들을 버리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26.1%가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동물의 행동 문제(27.8%)와

예산보다 큰 지출(22.2%)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조사를 제외하면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를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유기 동물 처리 방법의 경직성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소유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에 동물을 인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공식적으로 사설 동물보호소에 인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양육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탁하는 개인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몰래 내다 유기하는 것이 유일한 실질적인 해법이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일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애초에 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유기하지 않는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물을 키운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애완동물이 경제적·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애완동물 자체가 '목적'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애완동물'이란 단어보다는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다. 인간 일방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은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로 키우는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대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외로움이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사회 동물인 인간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교감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교감, 종교 등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과 교감하면서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견딘다.

오늘날의 반려동물은 정서 결핍을 완화해줄 수 있는 진밀한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려동물의 삶에서 주인의 존재는 자신의 세상이자 전부다. 우리는 그들의 세상의 전부이며 기쁨의 주체다. 우리가 외로움을 동물들에게서 해소하는 이유는 정서적 교감도 있었지만, 순수한 존재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의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직업과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

하고 잔혹한 학대·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반려동물 사육의 압력을 이면이러 불 수 있다. 동물 학대의 빈도가 증가하고 유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으나 사건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능력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대당한 동물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학대가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이 없다면 동물 학대 사건의 원인과 동물 학대범을 찾아내기 어렵다. 결국 동물 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동 조치와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동물 학대 범죄 전담수사팀 운영이 나 부서가 있어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팀을 따로 만들기 어렵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 목회칼럼

### 동서대학의 경쟁력은 인성 개발이다



최민구 교육실장

1960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10살 아동 2,08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지수를 측정했다.

도덕성 지수 상위 100명과 하위 100명의 데이터를 40년 후에 추적하여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상위 그룹 100명 중 생존자는 92명이었고, 이들의 자산 총액이 40억 달러, 대학 총장자 3명, 대기업 임원이 28명, 중견기업 실업자가 20여 명, 예술가 7명, 학교 선생님이 14명 등이었다.

하위 그룹 100명 중 생존자 80명이었고, 자산이 아닌 부채가 7천만 달러, 전과 3명 이상이 16명, 정신이상자가 21명, 죽은 20명 중 80%가 자살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28명 등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해 같은 도덕성 지수 측정된 결과 부모

와 같았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도덕성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에서 도덕성은 정서와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데이터를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방송에서 '도덕성'이란 주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를 보여주며 도덕성과 관련된 280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도덕성이 낮은 학생은 집중력도 낮고, 또래 관계도 힘들어하며, 과잉행동도 많고,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다 완전히 때릴만큼 당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왕따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도덕성 높은 학생은 집중력도 좋고, 친구 관계도 비교적 좋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보고 배우는 것이다. 앞서 사례를 들었듯이 부모의 도덕성을 본 그대로 배운다. 둘째로는 도덕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자기 이외의 도덕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경우 도덕 가치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려면 도덕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덕성 교육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체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덕 가치 기준을 지적으로 고민해야 바르게 학습될 수 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진리, 창조, 봉사,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창조성을 일깨우며,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왔다.

이를 위해 체질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기독교 건학이념을 몸소 실천하여 학생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고 있다.

동서대 학생들은 체질을 통해서도 도덕 가치를 인지하고, 각 전공 교수들을 통해서도 도덕성을 보고 배운다. 이는 학생들의 좋은 인성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고자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도덕성이 지금보다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하여 연간 약 80조의 경제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도덕성이 높으면 국가나 개인도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 인성이 좋으면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이미 오래전에 조사되고 결론이 났다. 과연 이를 적용하고 지속하는지가 문제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인성 개발 교육을 30년 동안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이 건학이념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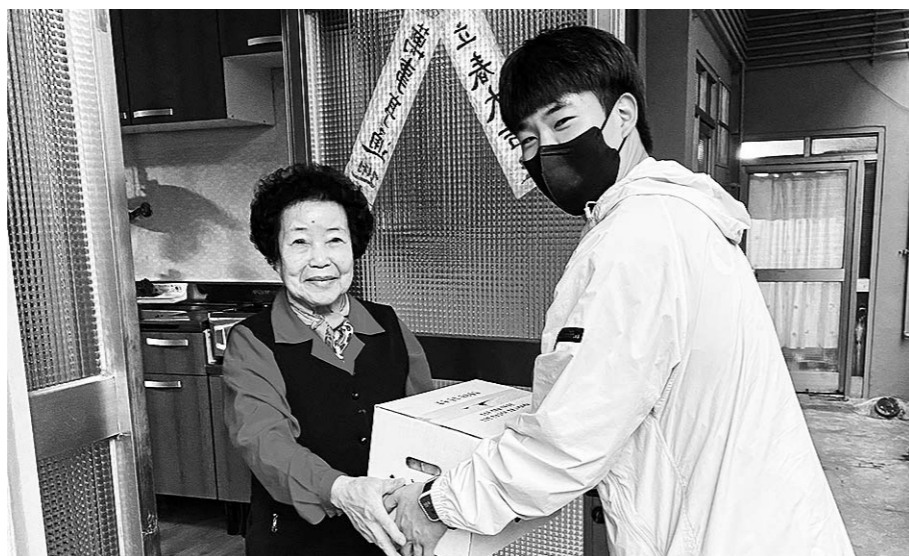
■ 학생 인터뷰 - 학생회 기획국장 구본유 학생

# 새로운 학기를 알리는 소리

## 축제로 인한 뜨거운 열기와 함성



▶ 공명 총학생회 기획국장 구본유 학생



▶ 학생회 김치봉사활동

이렇게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행히 축제의 마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강 후 바로 열리는 축제로 인해 개강의 설렘과 축제의 기쁨으로 한껏 들뜬 학생들에게 축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Q.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30대 공명 총학생회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구본유입니다.

**Q. 학생회에서 기획국장으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공명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시작할 때면 회의를 통해 행사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기획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 및 각종 문서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니까요?**

A. 코로나로 인해 2년간 하지 못했던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현재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체육대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체육대회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학우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담감과 긴장감이 줄어들어 저 또한 학우분들과 함께 체육대

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A.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그동안 축제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축제하게 돼서 저 또한 기대됩니다.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축제의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 반, 설렘 반이었지만, 그동안 축제를 하지 못했던 20~22학년 학우분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저희 또한 그 기대에 보답해 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담감과 걱정 또한 무엇보다 축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Q. 9월에 열리는 축제에 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올해는 동서대학교 개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축제의 타이틀은 30주년 기념행사며, 행사 컨셉은 복고풍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했던 90년대 분위기를 재현하여 학우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과거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Q. 우리 학교 축제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요?**

A. 다른 학교들의 축제는 공연과 음식이 메인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학교의 축제는 복고풍의 분위기가 메인이며, 복고풍 의상 및 옛날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간식 등 90년대의 추억이 담겨 있는 물품들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축제들과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Q.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대**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우분들이 많이 지원해준 '복면가왕'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됩니다.

복면가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참가자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러 관중들이 노래를 가장 잘 부른 사람을 투표해, 투표수가 높은 학생이 올라가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즐기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만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니 모두 기대하시도 좋을 것입니다.

**Q. 9월 축제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A. 9월의 축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동심'입니다.

올해 축제는 학우분들과 지역주민들의 동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한 90년대 분위기와 학우분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했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동심'으로 표현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홍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A. 20~22학년 학우분들은 이번 축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공명총학생회는 학우분들에게 더욱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 고풍행사 등 학우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는 만큼 축제를 통해 좋은 기운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광고홍보학과 이 흥 학생

# 야구 좋아하세요?

## 동서대학교와 롯데 자이언츠가 만났다!



▶ 광고홍보학과 4학년 이 흥 학생



▶ 클래스 셀링 수업에서 제작한 영상이 사직야구장에서 송출되고 있다.

동서대 LINC3.0 사업단 클래스 셀링(Class Selling) 프로그램을 통해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의 영상 제작을 맡게 된 광고홍보학과 이 흥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Q.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흥입니다.

**Q. 클래스 셀링 수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사직구장 스크린에 송출할 영상을 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어요.

**Q. 클래스 셀링은 어떤 수업인가요?**

A. 동서대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요청한 프로젝트를 교과목으로 개설해서 수업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에 판매하는 '주관형 산학공동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수업은 학생들이 클라이언트(기업)에게 먼저 과제를 요청하는 반면, 클래스 셀링 수업은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진행돼요.

**Q. 영상에 중점을 둔 포인트가 뭔가요?**

A.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적 특징과 롯데 자이언츠의 매력,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영상이 잘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야구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산의 사투리나 끈끈

한 정 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Q.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게 됐나요?**

A. 사직구장 대형스크린에 송출될 거라 관중분들이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기획하고자 했어요. '만약 내가 관중이라면 어떤 영상이 스크린에 나와야 웃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팀 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어요.

**Q. 교수님이 주신 팀이 있을까요?**

A. 실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적어서 예산안 작성에 유독 미숙했는데, 류도상 교수님께서 현업에 계셨을 때 사용하셨던 예산안 작성법을 세세하게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올바르게 예산안을 작성해 롯데 자이언츠 측에게 제출할 수 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Q. 이 흥 학생이 영상을 만드는 다른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으니까요?**

A. 저는 영상을 만들 때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를 자연스레 결과물도 좋아지기 때문에 영상 기획 과정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으니까요?**

A. 경기하지 않는 시간에 텀 빈 구장에 출입해서 촬영한다는 것과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 경기장에 올라온 것 등 평소 볼 수 없는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야구팬으로서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Q. 관중분들은 어떻게 섭외하셨나요?**

A. 관중 엑스트라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필요했어요. 롯데 40주년이고, 전광판

에 송출될 영상이라 평소 롯데 팬인 분들이 출연하는 게 더 진정성 있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팬인 분들 위주로 지인분들과 커뮤니티에서 엑스트라를 모집했습니다.

**Q. 제작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으니까요?**

A. 교수님과 저희만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영상이 관중분들께 공감할지, 웃음이 나올지 그 점이 제일 많이 걱정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재미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가 한여름이라 모두 더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구장에 영상이 게재된 모습을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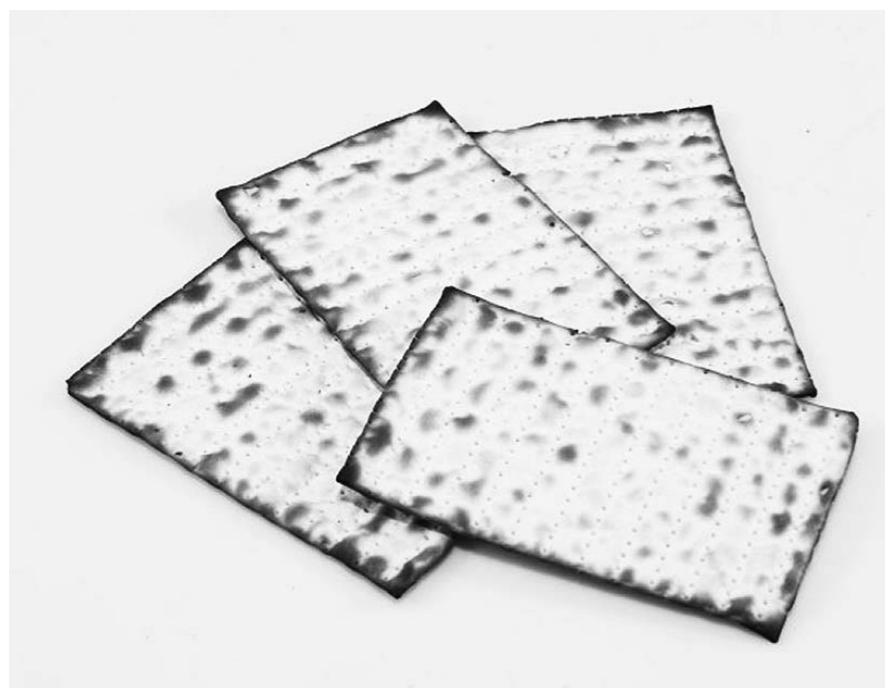
A. 저희가 아직 직접 구장에 가지는 못했는데 엑스트라 분이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관중들의 웃음이나 공감이 제일 걱정된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 관중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상이 공감해주고 웃고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힘들었던 과정들을 보답받는 기분과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루빨리 사직구장에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실제로 보고 싶네요.

**Q. 클래스 셀링 수업을 추천해 주고 싶은 학우가 있으니까요?**

A. 일반적인 학교 수업이랑은 다르게 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업에 더욱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할 학생들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험을 쌓고 싶거나 실제 경험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요.

최지혜 수습기자

# 성경 속 음식이야기



▶ 무교병

▷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이스라엘 블로그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먹는 특이한 음식이 있다. 히브리어로 맛차(Matzah)라고 부르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다.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도 불리는데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딱딱한 크래커와 같은 느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교회의 성찬식에 사용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무척이나 보편적인 음식이어서 유대교 예배의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일상에서도 짬을 발라 먹거나 샌드위치용 빵으로 사용해서 먹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성경 속 음식은 무교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

고자 한다. 무교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아야 한다. 유월절은 한국으로 치면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의 개념이며,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대교를 믿거나 태생부터 유대인인 사람들은 이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고 있던 중 이집트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자 야훼(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의 왕 자옌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된다. 그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즉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양방에 바르고 고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워 서둘러 먹으면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은 데서 유래했다.

앞서 이야기한 유월절의 출처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뭇잎과 아울러 먹되 7일 동안 먹어야 하고, 절기 내내 발효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만약 누룩이 들어간 무교병을 먹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지고 쫓겨나게 된다고 쓰여 있다. 이는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로 지키며

정월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누룩은 근처에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유월절은 애굽(이집트)에서 해방했다는 것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야훼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로서 기념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유월절에는 발효된 음식들을 모두 없애고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는데, 왜 하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에 대한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예컨대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였고 때문에 효모로 부풀린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애굽에서 양을 희생제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 급하게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5대 곡식인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가루를 불로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뭇잎과 아울러 먹되 7일 동안 먹어야 하고, 절기 내내 발효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만약 누룩이 들어간 무교병을 먹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지고 쫓겨나게 된다고 쓰여 있다. 이는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로 지키며

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율법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계로 만들기도 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이 조금씩 변화해나가는 것들이 점점 인상이 깊었다. 특히나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지만 현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유월절과 무교병,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이를 먹으며 기념했고 그 방식 또한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내려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드문 명절이다.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신-구약의 시대를 넘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었던 음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무교병을 가리켜 본인의 몸이라고 표현하시고 포도주를 가리켜 본인의 피라고 하실 정도이니 말이지, 만찬을 가지시고 체포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후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 또한 유월절을 중요한 의미로 해석해 예수님을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

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교병은 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 일상 가운데서도 즐겼던 음식이라고 한다. 특히 갑작스레 손님을 맞이할 때도 무교병을 대접했고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소제, 화목제 등을 드릴 때,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차서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릴 때 사용됐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기호에 맞춰 초콜릿, 향신료나 꿀로 맛을 낸 무교병도 있으며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들어진다 한다. 유대 가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무교병을 먹지만 상업화의 물결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색다른 방식의 무교병이 등장하는 것 또한 신기하기만 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변해온 무교병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이나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한 번 사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자료 출처 : 이스라엘 블로그  
네이버 지식백과-맛초  
네이버 지식백과-무교병  
네이버 지식백과-유월절  
박상욱 수습기자

DSU 동서대 대학신문사

동서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수습기자 모집 일정

- 일반기자(편입/복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누구나 가능)
- 객원기자(기자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재학생 누구나 환영)
- 동서대 신문사에 관심 있는 동서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 9월 13일~9월 25일까지  
동서대 홈페이지 모집란에서 동서대 수습기자 모집 안내 참조 후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Tel)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4915-8702(편집국장)

~9 월 25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